

# 예술에 대한 주관적 시선과 변용

### 이강하미술관 개관 2주년 기획전 김설아·표인부·신도원 신작 선포



신도원x이강하 파라다이스

이강하미술관은 개관 2주년 기념 기획전으로 오는 3월 10일까지 '주관적 변용'을 개최한다.

'주관적 변용'은 예술 철학자 아서 단토의 '예술은 깨어있는 꿈'에서 영감을 받아 문학적·인용한 것으로,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넘어 예술가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시각적 이미지로 표출한 전시를 의미한다.

김설아, 신도원, 표인부 작가가 참여해 다양한 장르와 예술에 대한 주관적인 시선들을 신작 작품을 통해 선보인다.

오랜 시간 예술이 주었던 아름다움의 경계를 넘어 '주관적 변용'된 전시를 통해 관객은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의 실체는 현실인가라는 원초적 질문을 던지게 된다.

김설아 작가는 물, 세포, 재, 곰팡이 균사 같은 미미한 생물체에 대한 존재와 형태를 작가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탐구해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진 변이된 존재로 흡착시키는 동양 회화작업을 추구한다. 실크 천 위의 집요한 세필작업이 만든 형상들은 눈을 간지럽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민하고, 그 형상들 사이를 파고드는 흑과 백의 중첩은 강렬하고 작은 소리들을 만들어 내는 작품으로 탄생했다.



표인부 작 '바람의 기억'



김설아 작 '사자의 은유'

신도원 작가는 무의식 중 떠오르는 드로잉 이미지를 모아 모니터나 가변의 망사 프레임에 미디어 영상작업을 투영시키는 작업을 보여준다.

가변설치작 '신도원x이강하 파라다이스, 2020년'은 구상과 추상의 경계를 허문 작업으로 미술관 내에 가상공간을 연출해 고 이강하 작가의 1970년

대 흥상과 함께 협업하는 현장을 담았다.

표인부 작가는 아크릴 물감으로 색을 입힌 한지를 캔버스 위에 겹치고 겹쳐 붙이는 작업을 통해 의식되지 않는 무의식 속 자연 상황을 바람의 상징적 현상으로 증명해 낸다. 작가는 그동안 새로운 재료와 다양한 작업의 방향을 시도해 왔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내적 의식을 발현해나가 작가의 기억과 사유에 맞닿아 있는 지점을 조형적 이미지로 담아낸 '바람의 기억' 시리즈 신작을 선보인다.

전시 오픈식은 17일 오후 4시이며, 참여 작가들의 작업에 대한 생각과 전시 작품 설명을 직접 들어볼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 본사 주최 김대중 정신계승 글짓기대회 수상작

## 집으로 돌아가며

-여보에게

여보 1950년을 기억하오? 아침 9시, 갑자기 집에 인민군들이 들이닥쳐 내 이름을 부르며 날 데려갔소. 4시간을 차를 타고 내려보니 생전 처음 보는 산골짜기에 군인들이 득실했소.

난 무슨 상황인지 몰라 장병에게 물어보았는데 전장이 낫다고 했소. 집에 여보를 두고 와 너무 걱정이 되어 하루빨리 부대를 나갈 고민을 했소. 여보는 전쟁이 일어난 지 모르는데, 30일간 훈련을 받고 전쟁에 참여했소. 눈앞에서 폭탄과 총알들이 빗발쳐서 난 너무 무서워 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문득 여보 생각이 나서 앞만 보고 달려갔소. 그때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고 한 보름쯤 걷다 보니 잃은



고등부 대상  
양동호 송원고 1년

정신이 돌아오면서 눈앞엔 황폐화된 우리 집이 있었소.

우리 집을 살살이 뒤졌는데 웃이랑 가구들은 다 불타 있었고 여보 대신 재가루가 날 반겨서 난 그 자리에 누워 한참을 울었소. 여보가 죽은 줄 알아 혼자 부산으로 내려갔소. 부산에 내려가긴

배를 채우려고 시장에 들러 꿀꿀이죽을 먹었는데 그마저도 어찌나 맛있던 지 한 그릇 더 달라고 했소.

시장에는 나 말고도 아주 많은 복讖 사람들이 많았는데 남에서 복讖 사람을 만나서 그런지 아주 좋았소. 난 3명의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 그 후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쿨다리에서 생활하다가 공장 직원을 모집한다는 말에 즉시 달려가 일을 얻었소. 여보가 없어서 내 옆은 항상 허전했지만 매일매일 "여보는 잘 있을까", "혹여나 죽은 것은 아닐까" 노심 조사하며 한 10년 정도를 공장에서 일하며 살았소.

그동안 번 돈으로 부산에서 작은 아파트 사고 여보를 맞이할 준비는 다 되었는 데 여보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생사 여부도 모르니 너무 답답하였소. 여보 말고 다른 여자를 내 아내로 들이기 싫어 남자아이를 입양하였소. 집으로 데려와

내가 이름을 지어주었소. 이름은 김만수. 내 첫째 아들이요.

아이가 7살이 되는 해에 나에게 물어봤소. "아버지, 엄마는 어딴어?"

난 10초간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엄마는 금방 오실 거야라고 말을 하였소. 다행히 만수는 공부도 잘하고 아이가 착실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갔소. 만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청와대에 들어갔소. 내가 백발노인이 되었을 때 만수가 평소와 표정이 다르길래 "만수, 무슨 일 있소?"라고 말하자 만수는 "아버지 지금 김대중 정권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수 있소. 운만 좋으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소"라고 말하였고, 난 그 소릴 듣자마자 "진짜?"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여보를 50년 만에 본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밤잠을 설쳤고 여보와의 추억을 곱씹으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소. 만수가 이산가족끼리 상봉하려면 헤어져 자연을 적어야 한다고 하면서 나에게 신청서를 가져왔소. 이

것만 쓰면 그토록 보고 싶던 여보를 만나는 만수의 말에 5시간 정도 여보와 헤어진 슬픈 이야기를 썼소.

한 보름쯤 되었나? 만수가 "아버지 어머니 만날 수 있소"라고 말하였소. 그 말을 듣자 너무 기분이 좋기도 하고 늙은 여보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결혼은 하였는지 그동안 잘 살았는지 고민도 하였소. 그래서 나는 "어디서 만나는 데?"라고 했는데 만수는 북이라고 말하였고, 나는 고향을 다시 밟고 그와 더불어 여보와도 만날 수 있어서 그날이 점점 다가오면 울수록 밤 잠을 설치고 밥도 잘 안 먹었소.

차로 6시간을 달려서 금강산에 도착을 하니 전경이 너무 좋더라고. 여렸을 적 기억도 나고 자리에 앉아 여보를 기다리는데 한 70세쯤 돼 보이는 백발 여성이 나에게 다가왔소. 근데 자세히 보니 여보를 닮아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여보를 안았지. 여보는 그동안 "잘 살았어요?", "노두고 피난 가서 미안해요"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지. 난 "결혼은 했

어?"라고 질문을 하자 여보는 당신이 오길 기다리고만 있었다고 하였지. 나도 똑같은 상황이라 너무 슬펐지만 난 결혼했다고 말하였지.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 여보가 더 슬퍼할 것 같아서.

시간은 흘러 우리가 다시 헤어져야 하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여보는 가지 말라고 너무 울더라고. 나도 너무 울고 싶었지만 웃으면서 "나중에 또 만날 건데 왜 울어요"라고 말했잖아. 근데 너무 슬퍼서 버스에 올라갔는데 여보가 가면서 먹고 도시락을 주었잖아. 너무 맛있었어. 50년 만에 먹은 여보의 음식 솜씨는 최고였지. 지금은 다시남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내가 보낸 편지가 여보에게 잘 전달되면 내가 결혼했다고 한 것은 농으로 알아두게. 그리고 지난 50년 동안 너무 꿈꿔왔던 여보와의 재회가 성사되어 너무 기쁘고 다음에 만날 때는 울지 말고 웃으면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싶네. 꼭 다시 만나오 사랑하는 여보.

2000년 8월 18일 집으로 돌아가며. -사랑하는 남편이-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고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역 현황

|                           |
|---------------------------|
| ■ 동구                      |
| 중앙 223-2378 010-3635-1195 |
| 충장 233-4123 010-7755-8824 |
| 학운 225-0651 010-4757-2442 |
| ■ 서구                      |
| 광천 374-2126 010-9602-2565 |
| 쌍촌 372-6659 010-6636-2775 |
| 화정 381-2156 010-4235-0902 |
| 상무 372-7625 010-5013-3889 |
| 풍암 681-3179 010-6634-5084 |
| ■ 남구                      |
| 봉선 673-6836 010-4757-2442 |
| 진월 653-6900 010-5662-7449 |
| 월산 010-8245-1625          |
| 남부 651-1833 010-2943-8016 |
| 송하 010-8620-1925          |

|                           |
|---------------------------|
| ■ 북구                      |
| 운암 525-3761 010-6886-3761 |
| 양산 574-3745 010-2646-3205 |
| 오치 261-9461 010-3629-0146 |
| 문흥 261-9462 010-7601-4480 |
| 일곡 573-3200 010-9273-0105 |
| 두암 264-7074 010-2684-6091 |
| 중흥 433-1503 010-4601-2080 |
| 북부 222-2524 010-2656-4543 |
| ■ 광산구                     |
| 첨단 971-7374 010-3613-2312 |
| 신가 952-4864 010-3648-2549 |
| 월곡 952-1687 010-3612-1687 |
| 우산 951-9954 010-5018-0024 |
| 수완 955-0451 010-3607-4560 |
| 송정 941-7070 010-3976-0123 |
| 혁신 010-4623-9622          |

###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                     |                    |                    |
|---------------------|--------------------|--------------------|
| 광산지사 010-3601-1102  | 담양지사 010-4154-8277 | 영암지사 010-4624-8409 |
| 목포(갑) 010-3272-2765 | 곡성지사 010-6764-6100 | 무안지사 010-3621-8989 |
| 목포(을) 010-3635-6777 | 구례지사 010-5431-4006 | 함평지사 010-3773-2522 |
| 목포(병) 010-9359-1648 | 고흥지사 010-9151-2828 | 영광지사 010-8666-2882 |
| 여수지사 010-8648-1236  | 보성지사 010-5259-6441 | 장성지사 010-3666-1300 |
| 순천지사 010-2547-7890  | 화순지사 010-3666-5888 | 완도지사 010-5619-7020 |
| 나주(갑) 010-6445-9370 | 장흥지사 010-3613-6114 | 진도지사 010-3624-4777 |
| 나주(을) 010-3713-7458 | 강진지사 010-6646-1241 | 신안지사 010-4627-1472 |
| 광양지사 010-2630-1628  | 해남지사 010-8181-2627 |                    |

**M 전남매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 월간국·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720-1080-82

이메일 편집국 : jndn@chol.com 관리국 : jsm7139@nate.com 월간국 : jnreviews@hanmail.net  
광고국 : jnmi1000@hanmail.net 마라톤대회 : 0518run@hanmail.net 글짓기대회 : peace20090818@hanmail.net